

## 정부, 동남아 12개 공관과 화상회의…"온라인스캠 풍선효과 대응"

등록 2026.05.15 18:02:55 | 수정 2026.05.15 18:22:25



[서울=뉴시스]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단속 강화로 예상되는 '풍선효과'를 차단 및 대응하기 위해 15일 동남아 지역 12개 재외공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단속 강화로 예상되는 '풍선효과'를 차단 및 대응하기 위해 15일 동남아 지역 12개 재외공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호치민 주재 공관이 참여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스캠 범죄 대응 경험을 다른 공관과 공유해 우리 국민의 초국가범죄 연루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조 기획관은 "동남아 지역의 우리 국민 연루 초국가범죄 관련 사건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적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캄보디아 경찰청 내 코리아 전담반을 토대로 대사관과 양국 경찰 인력 간에 현장 중

심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관련 신고 접수 시 대응 요령과 온라인 스캠 등 범죄 연루자 송환에 대한 구체 경험 등을 공유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보다 효과적인 초국가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동남아 지역 공관들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